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KOREAN COUNCIL OF SCIENCE EDITORS

ISSN 2287-6758
제36호
Newsletter
과편협 소식 | 기 고 | 해외 뉴스

36호 Newsletter Contents

과편협 소식

□ Scopus 등재를 위한 학술지 관리 워크숍(인문 · 사회과학 대상) 2
□ 출판윤리 온라인 워크숍(2020-E02) 개최 3
□ Crossref LIVE 20 Annual Meeting, Crossref Board of Directors 김기홍 부회장 선출 4
□ 편집인 온라인 워크숍(2020-A02) 개최 6
□ Scopus ECSAC-Korea 4기 위원회 출범 7
□ 2021년도 제11차 온라인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안내 8

기 고

□ Covid-19에 대응하는 온라인 교육, 학술 활동의 현재와 미래 12
□ 학술지 Open Access 전환 시 고려 사항 14

해외 뉴스

□ DOAJ 홈페이지 개편 특징 16

발행일: 2020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발행인: 허 선
편집인: 서태설
편집위원: 이현정, 윤지수
연락처: +82-2-3420-1390
URL: https://www.kcse.org/bbs/newsletter.php

Copyright © 2020 Korean Council of Science Editor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01. 과편협 소식

Scopus 등재를 위한 학술지 관리 워크숍(인문 · 사회과학 대상)

2020년 10월 28일~29일에 걸쳐 과편협과 엘스비어 코리아 공동 주최로 Scopus 등재를 위한 학술지 관리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인문•사회과학 분야 편집인들을 대상으로 Zoom을 이용한 화상회의로 진행하였으며, 총 132명이 참석하였다. 이틀 동안 진행된 워크숍의 첫날은 전체 분야를 아우르는 주제로, 학술 출판 관련 용어, 학술지 출판 관련 편집정책, 그리고 Scopus 등재 기준 소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둘째 날은 인문학 분야와 사회과학 분야로 나누어 소그룹 모임으로 진행하였다. Scopus 선정자문 한국위원회 위원을 역임 중인 리앤유 교수(고려대 한국사학과,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편집위원장)와 김철규 교수(고려대 사회학과)가 Scopus 등재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발표하였으며, 인문학 분야와 사회과학 분야에 학술지가 등재된 사례로 황종배 교수(건국대 영문학과,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편집위원장)와 정광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편집위원장)를 연사로 초빙하여 생생한 실제 등재 경험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실질적인 예시를 통한 정확한 설명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설문조사 의견을 남겨주었다.

10월 28일 프로그램

시간	발표내용	강사
14:00-14:10	교육 진행 안내 및 참석자 소개	좌장: 김수영(과편협 교육연수위원장; 한림대)
14:10-14:40	학술 출판 관련 용어	김기홍(과편협 부회장; 아주대)
14:40-15:30	Scopus 등재 기준	김형순(ECSAC-Korea 위원장)
15:30-15:40	휴식	
15:40-16:10	학술지 출판 관련 편집정책	조혜민(과편협 원고편집위원장; 인포루미)
16:10-17:00	Q&A	좌장: 김수영 ECSAC-Korea, 과편협 위원장 등

10월 29일 프로그램

시간	Session 1 (인문학)		Session 2 (사회과학)	
14:00-14:10	참석자 소개	좌장: 박재균 (과편협 감사; 단국대)	참석자 소개	좌장: 조혜민 (과편협 원고편집위원장; 인포루미)
14:10-14:35	Scopus 등재 시 고려할 사항 (인문학 분야 학술지 문제점)	리앤유(고려대 한국사학과)	Scopus 등재 시 고려할 사항 (사회과학 분야 학술지 문제점)	김철규 (고려대 사회학과)
14:35-15:00	Scopus 등재 경험 (인문학 분야)	황종배(건국대 영문과;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편집위원장)	Scopus 등재 경험 (사회과학 분야)	정광호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편집위원장)
Session 3 (통합) 좌장: 허선(과편협 회장; 한림대)				
15:10-16:00	학술지 개편 및 홈페이지 구성		조혜민(과편협 원고편집위원장; 인포루미)	
16:00-17:00	Q&A		ECSAC-Korea, 과편협 위원장 등	

출판윤리 온라인 워크숍(2020-E02) 개최

2020년 11월 19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과 공동 주최하여 출판윤리 온라인 워크숍(2020-E02)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은 "Authorship"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56명의 편집인이 참석하였는데, 중간중간 편집인들이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활발하게 질문과 의견을 개진하는 등 오프라인보다 오히려 더 생동감 있는 워크숍이 되었다. 워크숍을 마치고 Google Forms로 설문조사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출판윤리 온라인 워크숍: Authorship		
일시	2020년 11월 19일 (목) 14:00	
장소	Virtual Conference (실시간 온라인 강의: Zoom)	
시간	발표내용	강사
14:00-14:30	Authorship issues (기준과 다양한 이슈 중심)	윤철희 (과편협 출판윤리위원장; 서울대)
14:30-15:00	저자관련 연구출판윤리 법정사례	이주연 (과편협 출판윤리위원; 한양대)
15:00-15:10	Break	
15:10-15:40	해외 저자 자격과 기준	송충한 (비즈니스전략연구소)
15:40-16:10	누가 저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인재 (과편협 출판윤리위원; 서울교대)
16:10-16:30	질의응답 및 폐회	

▲ 출판윤리 온라인 워크숍(2020-E02) 참석자 단체사진.

Crossref LIVE 20 Annual Meeting, Crossref Board of Directors 김기홍 부회장 선출

2020년에 20주년을 맞은 Crossref가 11월 10일 온라인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에는 정기총회와 더불어, 16개 이사석 중 2020년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6개를 채우기 위한 선거가 이루어졌다. 이번 이사회 전에 회원들에게 미리 이메일로 후보를 안내하였다. 선거에는 4개의 소그룹과 2개의 대그룹 의석이 있었다. 후보는 아래와 같으며, Crossref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https://www.crossref.org/blog/2020-board-election/).

The 2020 slate

Candidate organizations, in alphabetical order, for the Small category (four seats available):

- **Beilstein-Institut**, Wendy Patterson
- **Korean Council of Science Editors**, Kihong Kim
- **OpenEdition**, Marin Dacos
- **Scientific Electronic Library Online (SciELO)**, Abel Packer,
- **The University of Hong Kong**, Jesse Xiao

Candidate organizations, in alphabetical order, for the Large category (two seats available):

- **AIP Publishing**, Jason Wilde,
- **Oxford University Press**, James Phillpotts,
- **Taylor & Francis**, Liz Allen

▲ Crossref 이사회 후보

6석의 후보 중에서 과편협 김기홍 부회장이 소그룹의 후보로 올랐으며 이사회 결과 선출되었다. (https://www.crossref.org/board-and-governance/elections/)

2020 election

The following organizations were elected to the board for three-year terms commencing March 2021:

Tier 1, small/mid-size members

- OpenEdition, Marin Dacos (France)
- Korean Council of Science Editors, Kihong Kim (South Korea)
- Scientific Electronic Library Online (SciELO), Abel Packer (Brazil)
- Beilstein-Institut, Wendy Patterson (Germany)

Tier 2, large members

- Taylor & Francis/F1000, Liz Allen (United Kingdom)
- Oxford University Press, James Phillpotts (United Kingdom)

▲ Crossref 이사회 결과

최근까지 Crossref의 임원은 모두 미국, 영국, 유럽권으로, 아시아에서는 과편협이 최초로 선출되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인정받은 만큼, 과편협은 앞으로도 학술 출판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학술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도움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편집인 온라인 워크숍(2020-A02) 개최

지난 11월 2일 2020년 마지막 온라인 편집인 워크숍(2020-A02)이 개최되었다. 이는 과편협에서 매해 신임 편집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워크숍으로, 과학기술 분야 학술지의 전반적인 주제를 폭넓게 다루는 강연으로 구성되어 왔다. 편집위원(장), 원고편집인 등 85명이 참석한 이 날 워크숍에서는 특별히 허 선 과편협 회장이 "COVID-19 유행 시대, 편집인 역할은 과거와 차이가 있을까?"라는 흥미로운 주제의 발표로 문을 열었으며, 김기홍 부회장이 COVID-19를 겪으며 학술지 출판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최근 이슈들을 소개해 주었다. 그 밖에 전문가 심사의 유형과 가이드라인, Scopus 등재 심사의 최근 경향, 저자 자격 이슈, 학술지 출판 Best Practice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이 이어졌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만큼, 참석자들은 실시간 채팅을 통한 질문으로 활발히 참여하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Scopus ECSAC-Korea 4기 위원회 출범

2019년 9월 1일부터 과편협은 엘스비어와 함께 Scopus 선정자문 한국위원회 3기를 구성하고 운영해왔다. 이 3기가 2020년 12월 31일로 임기를 마쳐, 새로이 4기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임기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까지이다. 4기 위원회 명단은 아래와 같다(https://ecsac-korea.kcse.org/advisory-committee/index.php).

ECSAC-KOREA
Scopus Expert Content Selection & Advisory Committee-Korea

소개 | **Scopus 선정자문 한국위원회** | Scopus 선정자문 지원위원회 | Scopus 등재 절차 | Scopus 등재 국내학술지 | 문의

Professor, Bae Ho Park (박배호)
Konkuk University
Chair of ECSAC-Korea

Professor, Leighanne Kimberly Yuh (리앤유)
Korea University
Subject Chair - Humanities

Professor, Jong-Bok Kim (김종복)
Kyung Hee University
Subject Chair - Language, Linguistics, Communication and Media

Professor, Young-seok Kim (김영석)
Myungji University
Subject Chair -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s Multidisciplinary

Professor, Youngsun Kwon (권영선)
KAIST
Subject Chair - Business, Management & Accounting, Decision Sciences, Economics, Econometrics & Finance

Professor, Sung-Jun Myung (명성준)
Gyeongsan National University
Subject Chair - Social Sciences (Public Administration), Law, Crime,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Professor, Innwoo Park (박인우)
Korea University
Subject Chair - Education

Professor, Inyi Choi (최인이)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ubject Chair - Social Sciences (Sociology), Psychology (Psychological Science)

Professor, Ho Won Jang (장호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Subject Chair - Chemical Engineering, Chemistry, Earth & Planetary Science, Energy, Environmental Science, Materials Science, Mathematics, Physics & Astronomy

Professor, Wonhee Jang (장원희)
Dongguk University
Subject Chair - Agricultural & Biological Sciences, Biochemistry, Genetics & Molecular Biology, Neuroscience, Veterinary

Professor, Jong-Bae Park (박종배)
Konkuk University
Subject Chair - Computer Science, Engineering (Electrical / Electronics)

Professor, Sang Woo Joo (주상우)
Yeungnam University
Subject Chair - Engineering (Mechanical)

Professor, Jaegyun Park (박재균)
Dankook University
Subject Chair - Engineering (Architectural / Civil)

Professor, Dong Soo Han (한동수)
Hanyang University
Subject Chair - Medicine

Professor, Sun Huh (허선)
Hallym University
Subject Chair - Health Professions, Dentistry, Immunology & Microbiology, Pharmacology, Toxicology & Pharmaceutics, Psychology (Psychiatry)

Professor, Sue Kim (김수)
Yonsei University
Subject Chair - Nur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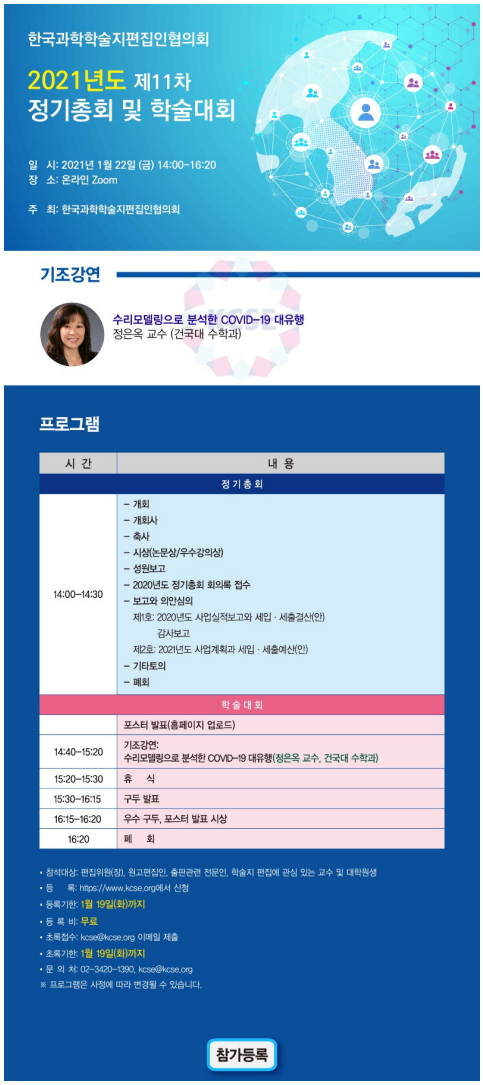
▲ Scopus 선정자문 한국위원회 4기 위원회

2021년도 제11차 온라인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안내

2021년 1월 22일(금)에 2021년도 제11차 과편협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는 정은옥 건국대 교수가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COVID-19 대유행"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은옥 교수는 수리모델링을 활용해 'COVID-19 종식 예측 모델'을 만들어 COVID-19 대응 정책 결정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COVID-19 수리모델링 Task Force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등록은 과편협 홈페이지(www.kcse.org) 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등록비는 무료이다. 초록은 1월 19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그 외 상세 일정은 아래 일정표와 같다. 과편협 회원은 물론 학술지 편집위원이나 원고편집인, 출판 관련 전문인 및 학술지 편집에 관심 있는 교수 및 대학원생 등 여러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과편협 회의 개최

날 짜	회 의 명
2020. 10. 15	2020-1차 원고편집위원회의
2020. 11. 24	Scopus ECSAC-Korea 하반기 회의
2020. 11. 26	2020-4차 정보관리위원회의
2020. 12. 4	2020-4차 임원회의

과편협 회원동정 / 회원현황

회원동정

〈단체회원 등재 소식〉

- 대한파킨슨병및이상운동질환학회『*Journal of Movement Disorders*』SCIE 등재
- 한국부식방식학회『*Corrosion Science and Technology*』ESCI, Scopus, KCI 등재

〈신임 편집위원장〉

- 김성종(목포해양대학교), *Corrosion Science and Technology*, 2021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 김인중(제주대학교), *Plant Biotechnology Reports*, 2021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 송현종(상지대학교),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21년 11월 30일
- 오수연(전남대학교), *Journal of Astronomy and Space Sciences*,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 이은정(성균관대학교), *Journal of Obesity & Metabolic Syndrome*, 2021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기타 소식〉

*Journal 타이틀 변경(2021년 1월 1일부터)

Bibliographic	Before	After
Journal name	Asian-Australasian Journal of Animal Sciences	Animal Bioscience
ISO abbrev.	Asian-Australas J Anim Sci	Anim Biosci
Acronym	AJAS	AB
Homepage	ajas.info	animbiosci.org
Email	jongkha@hotmail.com	animbiosci@gmail.com
pISSN	1011-2367	2765-0189
eISSN	1976-5517	2765-0235
DOI prefix	https://doi.org/10.5713/	Same
Open access	Yes	Yes
Contact*	Jong K Ha	Jong K Ha

*Prof. Jong K Ha, Editor-in-Chief
E-Mail: jongha@snu.ac.kr, animbiosci@gmail.com
Tel: +82-2-888-6558, Fax: +82-2-888-6559
Mailing Address: Room 708 Sammo Sporex, 23, Sillim-ro 59-gil, Gwanak-ku, Seoul, Korea (08776)

〈기타 소식〉

• 국제 저널 출판을 위해 영문교정 교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나고 자사 브랜드 이나고 아카데미는 탑 저널 논문 투고 시 신진 연구진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유용한 학술 자료를 제공하여 바쁜 선임연구진들도 본인의 연구 프로파일을 만들고 경력 발전을 위한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주로 논문 작성, 저널 출판, 출판된 논문 홍보에 대한 지식과 자료 확인이 가능하며 이는 주로 논문 출판 시 겪는 어려움이자 많은 연구진들이 잘못 이해를 하거나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나고 아카데미를 통해 보다 실용적이고 다국적 방면으로 연구진들이 연구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출판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나고 아카데미: https://www.enago.co.kr/academy/
이나고 서비스: https://www.enago.co.kr/

회원현황

• 개인회원 56명
• 단체회원 354종 (290개 학회)
• 특별회원 21기관

2021년도 과편협 연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22 2021년도 제11차 정기 총회 및 학술대회	2/20 Science Editing Vol 8. No.1 발행	3/10, 17, 24, 31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 3/31 뉴스레터 37호 발행	4/7, 14, 21, 28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 4월 중 출판윤리 워크숍		6/30 뉴스레터 38호 발행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7/2 Scopus 워크숍 7/17 원고편집인자격증 시험	8/20 Science Editing Vol 8. No.2 발행 8월 중 출판윤리 워크숍	9/8 창립 10주년 기념 편집인 워크숍 9/30 뉴스레터 39호 발행	10/28~29 Scopus 워크숍	11/4 원고편집인 워크숍 11/24 편집인 워크숍 11월 중 출판윤리 워크숍	12/31 뉴스레터 40호 발행

단체회원 가입안내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과편협)은 과학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 정보를 교환하고 편집 관련 규정을 협의하여 학술지의 질적 향상과 과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입니다.
본 협의회는 편집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출판윤리 관련 사안 심의, 편집 관련 최신 정보 제공 등 국내 편집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단체는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에게는 아래와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 편집인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50% 할인
- 과편협 발행 교육 책자 구입 시 정가의 50% 할인

가입을 원하시는 학술지 편집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가입 신청서 양식은 과편협 홈페이지(www.kcse.org)의 'Membership> How to join' 메뉴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과편협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장 윤 지 수

전화: 02-3420-1390 E-mail: kcse@kcse.org
주소: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2층)

『과편협 뉴스레터』는 회원님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과편협 뉴스레터』를 통해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양식에 기재하여 이메일(kcse@kcse.org)로 보내주세요.
『과편협 뉴스레터』는 3, 6, 9, 12월 말일 발행됩니다.

회원동정 양식

- 기관 (학회)명:
- 내용: (5줄 이내로 작성해주세요.)
- 기타: 사진, 링크 등 첨부

02. 기 고

Covid-19에 대응하는 온라인 교육, 학술 활동의 현재와 미래

이상욱 | 동의대학교 미디어광고학부 신문방송학전공

누구도 바라지 않았고, 누구도 익숙해지지 않는 Covid-19 팬데믹 상황이 곧 1년을 맞는다. 처음에는 부정하고 분노하다가 이제는 우울해하고 결국 체념하는 모습들이 주변에 많이 목격된다. 사실 인간의 탐욕이 불러일으킨 환경 재앙은 다양한 측면에서 예측되어 왔었다. 그것이 지구 온난화이든, 해수면 상승이든, 이번과 같은 전염병 상황이든 우리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미래는 다가오고 있다. 1965년 공상과학으로 존재하던 미래는 현재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1] 전자신문을 보고, 얼굴을 보면서 손전화기를 사용하며, 태양열 자동차를 몰고 있다. 그리고 집에서도 공부를 하는 미래가 이번 Covid-19 사태로 드디어 지금 도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오래된 미래'는 잠시의 미봉책이나 임시방편이 아닌, 계속 남아 있는 친숙한 친구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학술 활동을 한번 돌아보고 이 안에서 더 나아질 새로운 미래를 그려본다.

2020년 말 현재, 학계와 교육계에서 온라인 교육과 세미나는 이제 낯설지 않다. 그러나 시작은 혼란이었다. 갑작스럽게 시행된 전면적 비대면 수업은 기술적 문제부터 시작해서 수업 운영과 평가까지 모두 카오스 상황이었다. 또한 이런 혼돈을 교수자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온라인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이에 교수자들은 YouTube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으로 소통하며 비대면 수업을 발전시켰다.[2] 한편 학술 행사는 '일단 미루자'는 태도로 접어두기 급했다. 일부 대형 학술단체의 온라인 학술대회 사례를 제외하고는 이런 행사를 위한 기술, 시스템, 그리고 경험이 준비되지 않아, 쉽게 찾아보기 힘들었다. 어렵게 이루어진 일부 학술행사도 기존 방송 중계업체나 독립 프로덕션 등에 맡겨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고, 전문 진행자가 등장하는 등 겉으로는 풍족하지만 정작 학술적 성과를 나누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여름을 전후로 대학의 온라인 교육 경험을 갖춘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중소 규모의 학술행사도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했다. 하반기로 들어서며 온라인 학술 세미나 등은 점차 확산되어, 이제는 대면 학회를 하는 것이 더욱 어색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온라인 교육과 학술행사는 정말 잘 진행되고 있을까? 더 나아갈 바는 없을까?

2학기를 지난 대학의 온라인 교육은 아직도 1학기의 혼란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학생들의 불만은 2학기에도 반복되고, 교수자들은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의문을 품는다. 반면 온라인 세미나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전국적, 국제적 학술 세미나도 개인 공간에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쁘고 경제적 제약이 있는 연구자들은 매우 환영한다. 같은 지식 전달-습득 행위 임에도 두 활동에 대한 반응이 다른 이유는 참여자의 적극성, 활동의 개방성, 그리고 정보에 대한 태도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즉 대학 교육은 아직도 교수 중심의 일방적인 활동이며, 성과와 평가 중심의 구시대적 교육을 벗어나지 못했다. 반면 상호 소통과 개방, 공유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학술 활동들은 온라인 매체의 도움으로 드디어 새로운 공간에서 본격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2000년대 초반 등장한 개방, 참여, 공유의 Web 2.0 논의는 2020년 팬데믹 상황에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다시 소환된다.

이 개방, 참여, 공유의 방법으로 현재의 비대면 교육과 학술행사의 방법론을 정확히 돌아보자. 초기에 많이 사용되었던 영상에 의한 온라인 교육과 학술정보 유통은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등과 같은 프레젠테이션 도구를 그대로 활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는 편리성 때문에 각광을 받았다. 간단한 마이크와 노트북, 심지어 스마트폰만으로도 영상 교육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교육, 학술 활동에 활용된다. 그러나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힘들고 상호 소통이 제한적이기에 그 한계도 명확하다. 특히 자율적인 학습 참여자의 경우 반복 학습과 시간과 공간에 제

약이 없다는 장점으로 교육 효과가 매우 좋았으나, 수동적인 학습자의 경우 집중도와 학습 정도가 현저히 떨어졌다. 이로 인해 참여자 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정보, 학습의 불평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반면 Zoom, WebEx와 같은 실시간 온라인 회의 도구를 이용한 실시간 교육, 학술 활동은 갤러리 화면의 크기만큼이나 평등한 관계 속에서 상호 소통이 자유로울 뿐 아니라, 채팅, 자료 공유, 원격 제어, 통역 기능 등을 통하여 더욱 적극적인 참여 공간을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수자와 학습자, 참여자가 같은 시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네트워크 등의 안정성 문제가 있다. 또한 여러 이유로 아직 음질과 화질이 떨어져 전체 교육과 학술행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역시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일방적인 영상 전달 도구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런 온라인 회의 도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YouTube의 스트리밍 기능 등을 이용하여 교육과 학술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세미나의 발제자, 토론자들은 오프라인으로 모이고, 행사의 참관자들은 화질과 음질이 안정적이며 개방적인 YouTube로 참관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참여자들에게 매우 친숙하며 추후에도 시청이 가능하여 학술적 효과를 널리 퍼뜨리기 용이하다. 그러나 이는 Zoom 등 실시간 회의 툴을 이용하는 방식에 비하여 상호 소통이 제한되며, 복잡한 장비 세팅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기에 이를 대행하는 업체, 전문가를 초빙할 필요도 있다.

앞서 설명한 세 방법은 개방, 참여, 공유의 측면에서 모두 각자의 장점과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런 각자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상 콘텐츠를 이용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YouTube 플랫폼을 이용하여 개방성을 강조하고, 댓글 기능으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진다. Zoom은 회의 화면을 다른 장비 없이 간단히 프로그램에서 YouTube와 Facebook으로 스트리밍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했으며, 다수의 참관이 가능한 웨비나 기능을 추가로 운영 중이다. 그런가 하면 사용자들이 직접 여러 방법론을 혼합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교육·강연자료는 영상으로 미리 제작하여 실시간에 송출하고, 주요 토론자·발제자들은 실시간 회의 툴로 접속하고, 학습자·참관자는 YouTube로 시청하며 Kahoot, 카카오톡 오픈 채팅, 그 외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것이다. 분명 과정은 복잡해지지만, 개방, 참여, 공유의 세 가지 모두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한편 이런 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모더레이터(moderator)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즉 강연의 방향을 정하고 기획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한 방법론과 내용을 참여자에게 제공하고, 교육자와 학습자, 발제자와 청중을 연계하는 중재자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다. 이는 전문 진행자나 그 분야의 석학이라 해도 반드시 잘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므로, 비대면 교육이나 학술행사에서 모더레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이런 모더레이터의 양성과 훈련이 각 학술단체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분명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2020년의 Covid-19 사태는 우리를 또 발전시킬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 줄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KO도 없고 시합 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권투 링 위에서 이기지도, 지지도, 내려오지도 못한 채 계속 도망 다니고 있는 선수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삶은 지속되며, 다음을 위한 준비도, 진리를 위한 탐구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피할 수 없는 경기라면, 그리고 그것이 경기 이후에도 지속될 싸움이라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형진. 1965년 만화가 그린 세상이 모두 현실로: 이정문 화백의 1965년 '서기 2000년대의 생활의 이모저모'. 한국경제; 2017. 8. 28. Available from: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7082597281.
2. 김주영, 박정환. 대학 교수자들의 온라인 수업 전환 경험 분석을 위한 텍스트마이닝 연구. 교육공학연구 2020;36 Suppl:839-871.

학술지 Open Access 전환 시 고려 사항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학술정보공유센터

최근 유료 학술지를 오픈액세스(open access, OA)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학술지의 OA 출판 전환은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van Wesenbeeck과 Friend[1]는 OA 전환 경험이 있는 출판사와 학자들의 현실적인 의견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OA 출판 전환에는 약 1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학술지 OA 전환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 재정 분석 및 영향 평가

OA 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OA 전환 후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실행 가능한지, 학술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 제공되는지에 관한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 OA 전환은 수입과 지출의 구조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학술 출판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출판사나 학회 운영의 일부를 학술지가 충당하는 학회의 경우는 학술지의 수입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OA 전후의 수입과 지출의 구조에 매우 민감할 수 있다.

학술지의 현재 재정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적인 회계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Crow와 Goldstein[2]은 Open Society Institute 보고서에서 OA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재무 측면의 지속 가능성 예측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OA 전환 후 투고 논문 수, 학술지 독자층, 인용 횟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판에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증가한 투고 및 출판 가능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2.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하는 것은 유료 학술지가 OA로 전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도서관을 비롯한 구독자와 기관들에 OA 전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새 권(volume)을 시작할 때 OA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유료 학술지의 경우 구독자가 인쇄 버전에 대한 구독을 일정 기간 유지하기를 원하는 예도 있다. 따라서, 현재의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저자, 독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3. 기존 자료에 대한 처리

일반적으로 학술지마다 차이가 있지만, 논문의 투고와 게재 사이에는 항상 '파이프라인(게재가 확정되었으나 아직 출판되지는 않은 기간)'에 있는 논문이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 방안도 결정해야 한다.

학술지의 back issue에 대해 다음 문제에 대한 처리 방안도 해결되어야 한다.

1) Back issue도 OA가 가능한가?
2) Back issue를 OA로 전환할 경우, 해당 저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4. 학술지의 변화

OA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학술지의 브랜드를 변경하고 범위를 수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학술지의 특정 섹션을 나누어 OA로 출판하는 사례도 있다. 학술지의 범위 및 목표에 대한 조정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지만, 학술지명의 변경 등 중요한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다. 기존 유료 학술지의 잘 정의된 섹션을 분리하여 별도의 OA 학술지로 발간할 수도 있다. 이것은 학술지 전체를 OA로 완전히 전환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다.

5. 학회 발간 학술지 관련 이슈

학회 대부분은 학술지를 효율적으로 출판할 전문 지식이나 규모가 부족하고, 출판사로부터 유리한 계약 조건을 얻을 수 있는 전문성과 협상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더 효과적으로 학회지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 규모의 효율성, 시장 지배력을 얻기 위해 동일 분야의 여러 학회들이 공동으로 출판협동조합을 만들어 운영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학회 회원들에게는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학회지를 구독할 수 있는 특권이 존재하였으나, OA 전환은 이러한 회원의 특권을 없애거나 축소하여 학회의 기반인 회원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효율적인 출판 모델을 사용한다면 회원의 특권을 없애서 절약한 비용으로 OA 발간 비용의 상당 부분을 감당할 수 있으나, 회원의 감소로 인해 학회의 궁극적인 역할이 축소될 개연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학회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결정하기 위해, 학회 회원들에게 현재의 재정 상황과 OA 전환 후의 재정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학회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OA 전환 결정이 내려지면 학회지를 OA로 발간하기 위해 현재의 출판사와의 계약을 취소하거나 아마도 재교섭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Schmoller[3]는 주요 상업 구독 출판사와의 계약 검토 및 취소, OA 출판사 발굴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출판사와의 협상, 제안 요청서 작성, 접수된 제안서 비교, 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참고문헌

1. van Wesenbeeck A, Friend F. Scholarly society journals in transition to open access. Report on the workshop organized by the Knowledge Exchange Open Access Working Group, with the Assistance of SPARC Europe and the Open Access Scholarly Publishers Association; September 2011; Tallinn, Estonia. Available from: www.knowledge-exchange.info/reports/36.
2. Crow R, Goldstein H; SPARC Consulting Group. Guide to business planning for converting a subscription-based journal to open access. 3th ed. New York: Open Society Institute; 2004.
3. Schmoller S. Journal tendering for societies: a brief guide. Chesterton, Oxfordshire: Association for Learning Technology; 2011. Available from: http://repository.alt.ac.uk/887/.

03. 해외 뉴스

DOAJ 홈페이지 개편 특징

이현정 | DOAJ 한국대사 / 과편협 정보관리위원회 부위원장

2020년 11월 25일에 DOAJ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홈페이지가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재편되었다. 현재 123개국의 약 15,000여 종의 학술지, 550만여 건의 문헌이 색인되어 있고 모든 데이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새로운 인터페이스에서는 article processing charge가 없는 학술지의 종수도 표시하고 있는데, 약 11,000여 종에 달한다(그림 1). 세부적인 특징은 아래에 기술하였다. 이 글은 DOAJ News Service에 게시된 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https://blog.doaj.org/).

1. 정보와 메타데이터에 대한 접근의 편의성 향상

Doaj.org의 새로운 페이지는 좀 더 플랫한 컨텐츠 계층 구조로 구성하여 원하는 항목으로 도달하기 위한 클릭 수를 줄였다. 개발자와 게시자가 데이터에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OAI-PMH, API, OpenURL, 위젯 및 public data dump와 관련된 모든 DOAJ 관련 문서를 포괄적으로 모아두었다. 반응형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iPhone 및 Android 기기, Chrome, Edge, Firefox, Safari, MacOS, Linux 및 Windows에서 테스트했다.

2. 새롭고 간소화된 신청 프로세스

질문을 섹션으로 나누고, 양식 탐색을 위한 더 많은 context 링크와 메뉴를 추가했다. 학술지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Review your answers" 페이지를 통해 답변 요약을 볼 수 있다. 신청 시에는 계정을 만들어야 하고, 세션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진행 상황을 임시 저장할 수 있다. 신청자가 저장하는 것을 잊어버리더라도 자동으로 저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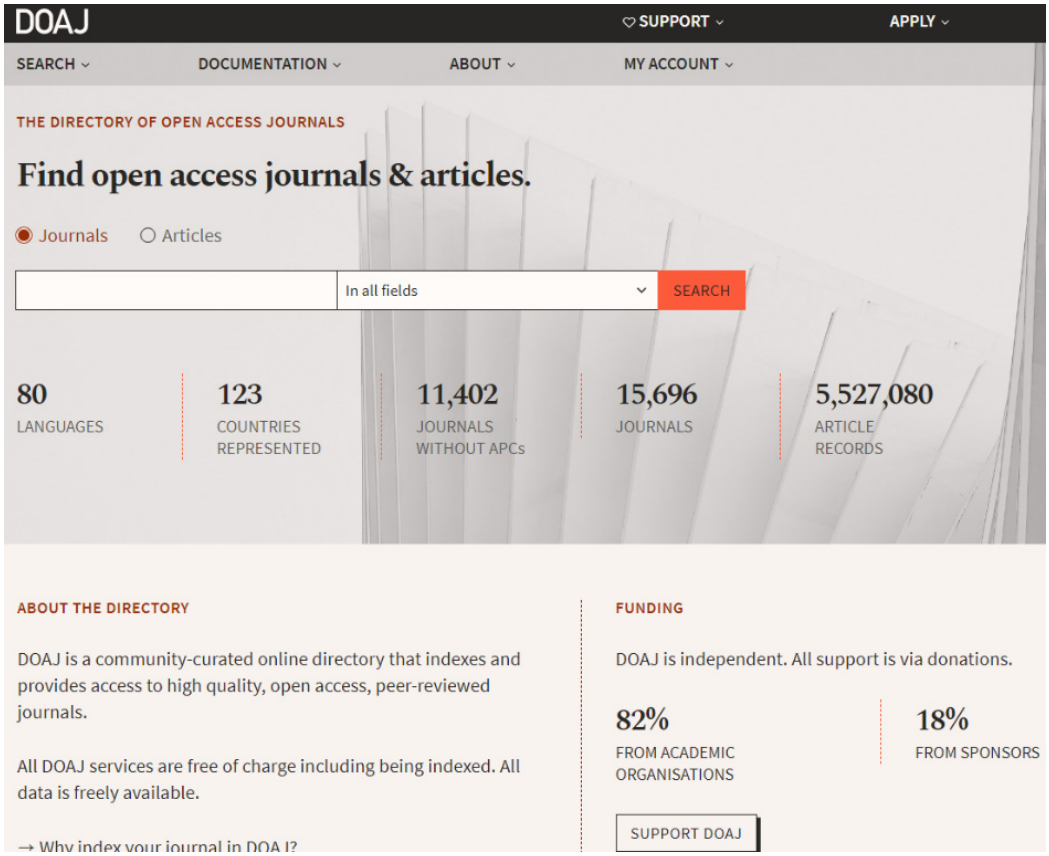
3. 깔끔하고 집중된 검색 환경

"Search by Subject Name"이라는 필드를 추가하여 관심 분야와 관련이 없는 다른 검색 결과를 검색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한 여러 개의 필터를 함께 검색에 이용할 때 정확률과 재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드와 필드를 AND로 연결하지 않고 OR로 연결한다. 주제어(Subjects)를 추가할 때 검색 결과로 나타나는 학술지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그리고 주요 메타데이터를 강조하고 사용자가 다른 관련 저널이나 문헌을 찾을 수 있도록 레이아웃을 새롭게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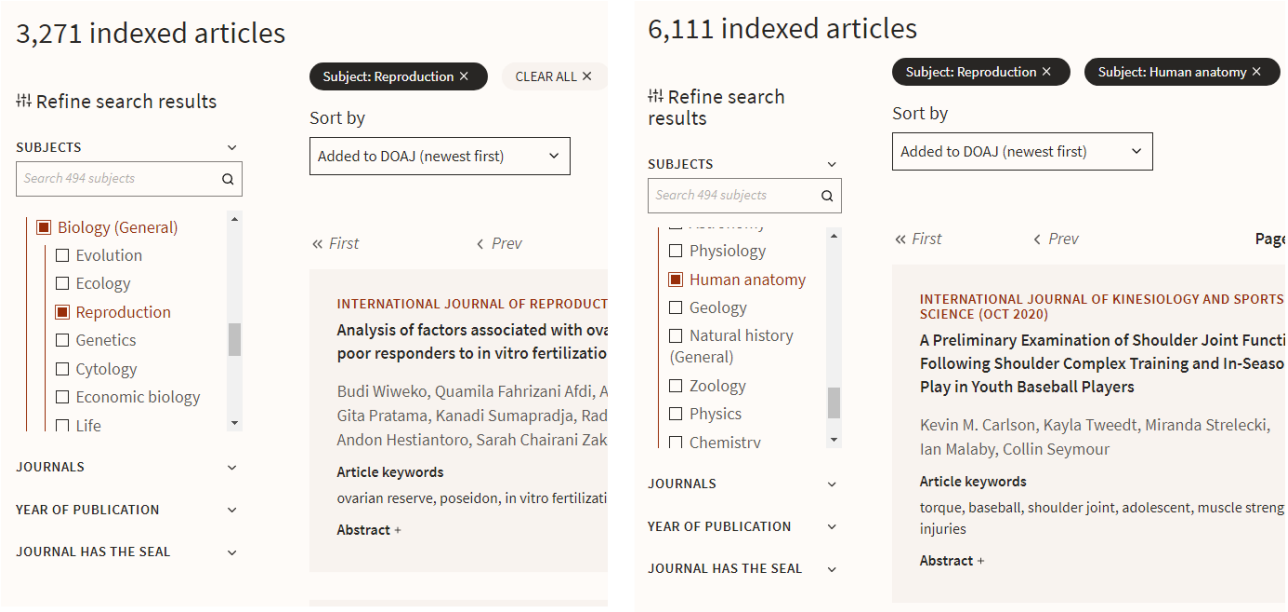
4. 투명성 및 추가 정보 제공에 노력

"Support DOAJ"와 "Volunteers" 등의 메뉴를 통해 DOAJ 팀과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알리고 그들의 기여를 잘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고, 운영 자금의 출처와 다양한 지원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술지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했을 때 어떻게 해야 수락되는지, 거부된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추가했다.

새로운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접근하여 국내 오픈 액세스 학술지와 논문들이 더 많이 색인되고 서비스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그림 1. 리뉴얼된 DOAJ 사이트.



▲ 그림 2. 주제어를 통한 학술지 검색.